

| 조사 결과 |

조사결과 중국 청소년들은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대만 청소년들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 및 조건부 긍정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도적인 의견의 답변을 제외하면 양국 청소년들의 의견이 전반적으로 엇갈리는 모습이 보이는 바, 중국과 대만 청소년들 간에 '양안경제통합'에 대한 인식에 대한 내면적인 갈등이 있음을 조심스럽게 진단하는 바이다.

| 결론 |

내면적 갈등. 그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

본 연구팀은 전반적인 조사결과, '양 국 청소년들의 양안경제 통합에 대한 내면적 갈등'의 본질적인 근원이 '자국의 국가관에 대한 뿌리 깊은 인식'에 있다고 보았다.

중국은 이미 대만을 중국에 속하는 곳으로 보고, 대만의 경우 중국과 다른 개별적 독립국으로 생각한다는 것.

대만의 경우 중국에 의해 국제사회 속에서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데다, 내수시장의 한계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 대만 청소년들은 경제적인 성장만큼이나 '정치적인 통합에 대한 우려'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만은 앞으로 경제적인 큰 고립에 빠지지 않는 한, 대만 독립을 견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지속할 것이라 예상된다. 게다가 대만 지방선거(14년 11월)에서 드러난 친중 성향의 국민당(집권당)참패 그리고 현 마잉주정권이 레임덕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대만 내 여론을 고려해 보았을 때, 향후 대만 국민의 여론을 통과하여 CSSTA협정의 승인이 조속히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본 진단의 새로운 변수가 있다면 그것은 2014년 11월 승인된 '한중FTA'다. 대만은 중국을 상대로 한 해외수출품목의 70%가 한국과 비슷한데, 한중FTA로 대만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려가 대만 현지에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만의 현 집권당인 국민당이 한중FTA로 언론몰이를 하여, 친중 경제협력의 필요에 대한 적극적인 어필을 하고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만의 '독립국'이라는 뿌리 깊은 국가관 때문에 '양안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소통 없이는 보다 적극적인 양안경제협력에 어려움과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하는 바이다.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한중FTA의 정착 및 대만과 경쟁하며 대중수출을 하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주제 |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청소년들의  
양안경제통합관에 대한 인식 조사

| 용어 정의 |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의 공식명칭)

중화민국 (대만의 공식명칭)

|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대만 타이베이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경제협정(CSSTA)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 발생(집회 추산 50만명). 왜 그런 것일까?
연구목적	중국과 대만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양안경제협력 및 통합에 대한 인식조사

| 연구 범위 및 방법 |

연구 범위	중국 광둥성 광저우 광동외어외무대학교 대만 타이베이 국립정치대학교 학생
연구 방법	① 설문조사 - 양국 각각 200명씩 - 남·여, 상경·비상경 비율 각각 50% - 1차 조사(주관식)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식문항 진행 ② 중국 · 대만 대학생들과 간담회 ③ 양안 학생과 심층인터뷰 실시

| 용어 정의 |

ECFA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는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으로서, 상품분야 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그 외에도 서비스무역개발, 투자보장,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무역협정을 말한다. FTA의 전초 단계로 보아도 무방하며, 핵심은 FA(Framework Agreement)로 전반적인 경제협정의 틀을 정하고, 후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CSSTA

CSSTA(Cross-Strait Service Trade Agreement)는 ECFA의 후속 협상에 해당하는 서비스무역 분야의 경제협정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대만 대규모 반대시위의 발단이 된 경제협정이다. CSSTA는 중국이 대만에 65개 항목을, 대만은 중국에 55개의 항목의 서비스 산업을 개방한다는 내용으로 중국이 대만에 개방하는 분야는 총 7개 분야(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 물류, 금융, 의료, 통신 및 여행) 65개 항목이며, 대만이 중국에 개방하는 분야는 총 4개 분야(금융, 의료, 통신, 여행) 55개 항목이다.